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과 국가의 당면 사업과 중요정책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7월 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 참가하시었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는 또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내각, 성, 중앙기관 성원들, 도당 위원장, 도인민위원장들, 무력기관 지휘성원들, 중앙비상방역지휘부 성원들, 건설부문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고 중요결론을 하시었다.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으로 악성전염병을 막기 위한 6개월간의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국가비상방역사업을 강화하여 지금의 방역형세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이 이번 정치국회의에서 국가비상방역문제를 또다시 토의하는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6개월간에 걸치는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시고 우리가 세계적인 보건위기속에서도 악성비



루스의 경내침입을 철저히 방어하고 안정된 방역형세를 유지하고있는것은 당중앙의 선견지명적인 령도력과 당중앙의 명령지시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전체 인민의 고도의 자각적일치성이 쟁취한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방역성과를 귀중히 여기고 부단히 공고화하여 국가의 안전, 인민의 안녕을 백방으로 보장하고 담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근 주변나라들과 름집지역에서 악성전염병의 재감

염, 재확산추이가 지속되고있고 그 위험성이 해소될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방역전초선이 조금도 자만하거나 해이됨이 없이 최대로 각성경계하며 방역사업을 재점검하고 더 엄격히 실시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비상방역사업이 장기성을 띠게 되면서 일군들속에서 점차 만연되고있는 방심과 방관, 만성화된 현상들과 비상방역규률위반 현상들에 대하여 엄하게 비판하시고 서부른 방역조치의 완화는 상상할수

도, 만회할수도 없는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 거듭 경고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오늘의 방역형세가 좋다고 자만도취되어 긴장성을 늦추지 말고 전염병류입위험성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비상방역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회의에서는 6개월간의 국가비상방역사업정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토론들을 진행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상반년도 국가

비상방역사업에서 발로된 문제점들을 비판적검지에서 심각히 분석총화하였으며 세계적인 피해상황에 대처하여 비상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조직정체사업을 더욱 짜고들고 비상방역체계를 엄격히 유지하기 위한 보다 세밀하고 적실한 대책들을 강구해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으로 평양종합병원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봉사를 위한 인적 및 물질기술적보장대책을 강구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종합병원건설자들의 비상한 정신력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어렵고 불리한 조건을 과감히 극복하며 건축공사가 일정에 계획대로 완강히 추진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종합병원을 인민들에게 실시 최상급의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할수 있게 세계적수준으로 훌륭히 완공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시급히 대책하기 위한 국가적인 강령적 조치를 취해주시고 시공부문, 자재보장부문, 운영준비부문앞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초안을 연구하고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당대의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과 기타 사항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본사기자

인민사랑은 전변의 력사를 창조한다

이해도 벌써 절반을 넘어섰다.

세계적인 대류행성전염병과 그에 따른 경제침체는 인류에게 커다란 인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고있으며 지구상 곳곳에서는 뿌리깊은 종교간, 지역간 분쟁이 고치지지 않고있다.

하지만 동방의 나라 조선에 펼쳐지는 현실은 이와는 다르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시작되고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공화국인민의 올해 첫걸음, 첫시작은 레사름이 없었다.

정면돌파전! 세계가 이해의 시작부터 숨가쁜 걸음을 내딛고있을 때 공화국인민은 힘차게 내달리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적을 떨치고있다.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는가.

인민에 대한 령도자의 사랑과 믿음이다.

...혁명가들이 혁명을 하자면 우리 인민으로부터 받는 값진 믿음을 생의 전부로 받아안아야 한다. ...

...우리 인민과 같은 훌륭한 인민을 위해 뛰고 또 뛰

는 총신하고 부지런한 인민의 심부름꾼이 되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해말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제시하시며 일군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공화국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하시며 인민을 위해 밀사복무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다.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 게 의거하여

최우선, 절대시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다. ...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인위천의 사상과 정치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공화국인민에게 있어서 생명의 젖줄 기이고 활력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인민에 대한 열화의 사랑으로 그이께서는 이 땅에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대화원을 꽃피워가고계신다.

올해초 대류행성전염병이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

으로 밀려왔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즉시 인민사수전의 조치를 취해주시었고 3월에는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평양종합병원건설이라는 사랑의 불피성을 올리시었다.

돌풍속에서 더욱 변함없이 없고 역경속에서 더욱 강렬해지는 것이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다.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인민을 위한 밀사복무전으로 령도해나가는 속에 소집하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 소식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심금을 울렸던가.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인민생활보장과 관련한 국가적인 대책을 강하게 세울데 대한 의제를 논의한 정치국회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이다.

그이께서는 이번에도 또다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하시어 악성전염병을 막기 위한 6개월간의 사업정형총화와 국가비상방역사업을 강화하여 지

금의 방역형세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문제, 평양종합병원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봉사 제역소, 사리원방직공장, 순천지구청년단관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많은 부문에서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자랑찬 성과들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해지고있다.

량도자의 사랑과 믿음은 이처럼 공화국인민이 만난시련을 뚫고 제힘으로 부강조국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도록 떠밀어주고있다.

세상을 둘러보면 《비무스와의 전쟁》과 가지가지의 재난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사랑으로 풍요롭고 웃음꽃이 만발하며 기적의 열매가 주렁거리는 인민의 나라 공화국은 더욱 눈부시게 이채롭다.

사랑과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해가는 정면돌파전은 모든 시련과 난관을 격파하고 올해를 공화국의 력사에 빛나는 한페이지로 장식할것이며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노래가 공화국인민의 실생활로 될 새로운 승리는 반드시 앞당겨질것이다.

허영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여름철답사 진행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여름철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국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발자취와 항일혁명선열들의 고귀한 넋을 가슴깊이 새기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다그치고있다.

지난 6월 중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첫 여름철답사행군대오가 평양을 출발할 때로부터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답사단체들이 꼬리를 물고있다.

답사행군대원들은 먼저

해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드리고 보천보전투 승리기념탑과 해산혁명렬사릉을 비롯한 혁명사적지를 참관하고있다.

해산-삼지연행렬차를 타고 삼지연청년역에 도착한 답사행군대원들은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행군한 다음 삼지연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동상앞 교양마당에서 출발모임을 가지었다.

답사행군대원들은 청봉, 건창, 배계봉속영지를 비롯한 혁명전적지들에 있는 귀

틀집들과 우등불자리, 밭짓

던 자리들을 돌아보면서 항일선열들처럼 시련을 박차고 오늘의 정면돌파전에 승리자가 될 불같은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백두산혁명교향집을 찾은 답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뜨겁게 둘러보고있다.

백두산정에 오른 인민군인들과 전국각지의 여러 단

위 답사행군대원들은 백두

밀림에 나래치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아 생산

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진행할 열의에 넘

쳐있었다.

본사기자

